

전등사대주루

정수사대웅전 네뺨여담이문

초지대교

강화도서해안낙조

덕진전 입구

역사·낭만이 함께하는 '강화'

초지대교 개통... 더 가까워진 여행명소로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가장 큰 섬인 강화도. 섬 전체는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역사유적들이 그득한 거대한 역사 박물관이다.

이 볼거리 많은 섬이 지난달 29일 초지대교의 개통으로 한발짝 더 가까운 여행명소로 다가왔다.

초지대교로 명명된 제2강화대교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강화도 동남쪽 길상면 초지리를 연결하는 길이 1200m, 왕복 4차선의 다리. 이에 따라 강화대교로만 물리던 차량 소통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초지대교를 오가며 둘러볼 만한 곳들을 소개한다.

전등사

화려한 옛 건축·약사여래 미소 간직

이 절은 본래 고구려 소수림왕 11년 아도화상이 창건, '진동사'라고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정화공주가 송나라에서 가져온 대장경 중 경덕전등록을 이 절에 보관케 하면서 '전등사'로 다시 바뀌었다. 전등사 당우는 보면 불수룩 그 깊은 맛이 우러난다. 우선 보물 178호인 대웅전은 비록 빛바랜 단청 때문에 지나치기 쉽지만 배흘림기둥과 붓머리의 조각이 화려하다. 보물 179호인 약사전의 약사여래상은

인자한 웃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축원한다. 이밖에 정화공주가 시주했다는 옥등과 중국에서 주조해온 범종, 청동수조 등 볼거리들이 많다. 숨겨진 즐거움이 또 있다. 삼랑산성을 돌아볼 수 있는 길을 찾아 내면 1시간 가량 호젓한 산행을 즐길 수 있다. 언덕에 오르면 서해가 시원스레 펼쳐지고 강화해협 쪽의 국방유적지 초지진과 광성보가 한눈에 들어온다. (032)937-0125

정수사

산사정취에 이방인 마음 사로잡고...

신라대 창건한 절 '정수사'에는 17세기 건물 대웅보전 중앙 출입문인 네뺨여담이

문(보물 제 161호)의 모란꽃 창살이 매우 아름답다. 통나무를 손으로 파내 만든 문살은 고건축양식에서도 특이한 장식으로 꼽힌다. 신라 선덕여왕 8년(639) 회경선사가 창건해 정수사(精修寺)라 했던 것을 조선 세종 5년(1423) 함허대사가 중창하면서 범당 서쪽의 맑은 물을 발견하고 한자를 고쳐 정수사(淨水寺)로 고쳤다.

특별히 주목할 문화재는 없지만 언제나 소슬한 적막만이 감도는 산사의 정취가 마음을 움직이고, 바위의 작은 틈을 조그만 동자상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모습도 한 없이 재미 있다. 입구에서 대웅전까지 펼쳐진 1km의 숲길이 울창하다. (032)937-3611

대곶면

포도도 맛보고 삼림욕도 즐기고...

덕포진 가는 길목의 대곶면에는 출하를 앞둔 포도밭이 탐스런 포도송이를 매달고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ya.com

있다. 대곶면은 유명한 포도산지다.

덕포진교육박물관

아련한 학생시절 추억 되살려줘

초등학교 교사였던 김동선(61)·이인숙(55·시각장애인씨 부부가 운영하는 개인 박물관이다. 각급 학교 배치·교과서·교복·문구류 등 7000여점의 옛 학교생활용품들이 전시돼, 아련한 60년대 학생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준다. 3학년2반 팻말의 교실에는 조그만 책걸상들과 풍금, 조개탄 난로가 놓여 있고, 난로 위엔 일루미눔 도시락들이 층층이 쌓여 있다. 또 50여년된 풍금, 배물뚝이석탄난로, 찌그러진 양은주전자에 빛바랜 50년대 교과서와 성적표 등이 전시돼 있고, 한쪽편에는 수업시간을 알려주던 종도 걸려 있다. 방문객들이 원하면 김·이 부부가 교사로 나서, 풍금을 치며 음악수업(이씨)을 해주거나, 30년전 생활문화 수업(김씨)을 진행한다. 3학년 2반은 이씨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담임반이었다. 입장료 어른 1500원, 어린이 1000원. (031)989-8580

손돌목과 대명포구

역사 체험하며 꽃게축제 참가

손돌은 조선시대의 한 왕(인조로 추정)이 난을 피해 강화도로 피신할 때 배를 몰았던 배사공이다. 위험한 여울쪽으로 노를 젓자 왕이 의심해 손돌을 처형했으나, 건넌 뒤에야 손돌의 말이 옳았음을 알고 후회했다고 한다. 철물이 빠지며 급물살을 이루는 이곳을 손돌목이라 부른다. 부근 대명포구는 꽃게 집산지다. 11월말까지 꽃게축제가 열린다.

강화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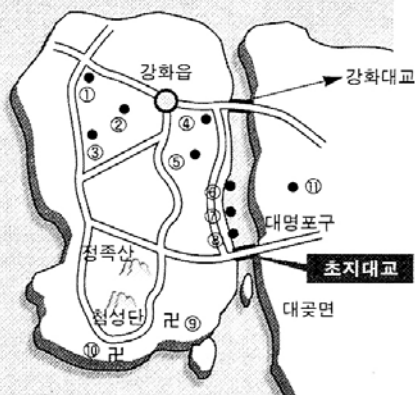
시대별 강화 한눈에 볼 수 있어...

강화역사박물관에 들르면 강화도의 역사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2층 건물에 선사시대부터 고려·조선·대한제국시대 역사가 시대별로 정리돼 있다. 부근에 강화 53문대중 하나인 갑곶돈대가 있다. 돈대란 군사요충지로 이용된 높직한 평지를 말한다. (032)933-3692

찾아 가는 길

초지대교 쉽게 찾아 가는 길=서울 올림픽대로를 이용, 김포시 누산리 방면으로 가다 양곡우회도로에서 우회전한 뒤 352번 지방도를 지나면 초지대교 입구에 도착한다. 또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를 빠져나와 김포시청 방면으로 간 뒤 양곡사거리에서 대명리 입구로 들어서면 초지대교와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탈 수 있다. 인천에서는 서구 검단을 지나 김포 양곡방면으로 가다 양곡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 초지대교로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만난다.

- ①백련사
- ②청령사
- ③적석사
- ④강화역사박물관
- ⑤선원사지
- ⑥광성보
- ⑦덕진전
- ⑧초지진
- ⑨전등사
- ⑩정수사
- ⑪덕포진교육박물관



김승수



한의학 박사·송암한의원 원장

찬바람이 나면서 기침, 특히 알러지 현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 숨이 참을 느끼고, 갑작스러운 기침, 호흡곤란, 현명, 객담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자다가 호흡곤란으로 쉼짝거리는 소리를 내기도하고 가래를 가랑거리는

알러지 천식

증상을 보인다. 그리고 천식은 특징적으로 발작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천식이 있었느냐는 것이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한 환절기에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천식 치료의 가

장 큰 어려움은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는 점이다. 알러지 천식과 관련 있는 한의학적 증후는 효천(哮喘), 담천(痰喘) 등으로 해석하며, 한의학에서

환절기 찬기운에 폐기능 약화 원인 기력 충분히 보충·환경적응 치료를

기침의 기전을 '몸이 차고 음식을 차갑게 하면 폐기능을 상한다(形寒飲冷則 傷肺)'라고 설명한다. 즉 겨울철이나 환절기 그리고 밤에 기침이 심해지는 까닭은 찬 기

운 때문에 폐기능이 약해져서 라는 것이다. 그리고 천식 치료의 관건은 폐기능의 정상화에 달려있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한의학적 인 천식치료는 천명이나 호흡곤

란, 기침이 나타나는 발작기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완해기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다. 완해기에 모자라는 폐기능을 보강해서 결과적으

로 기도의 과민성을 억제해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나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병의 근본을 다스릴 수 없으며, 증상을 치료함과 동시에 호흡기계를 비롯한 전신의 기력(正氣)을 충실하게 하여 찬기운이나 자극적인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치료인 것이다. "정기가 충실하면 병이 침범할 수 없다(正氣存內 邪不可干)" 황제내경의 글귀인데 알러지 질환의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밤! 밤! 밤! 밤따러 가세

△충남 천안 유성농원(041-553-3120)에서는 10월 10일까지 밤줍기 행사를 한다. 시설 관리비로 성인 5000원, 어린이 3500원을 내면 군밤 시식 등을 할 수 있다. 20만평이 넘는 야산에 밤나무 2만여 그루를 갖추었다.

→가는길: 경부선 목천 나들목 네거리에서 병천 쪽 우회전 후 2km 직진 연천교 앞에서 좌회전 개울 따라서 11km 직진.

△경춘관광(02-777-6681)은 28·29일 경기도 양평군 화양1리 남한강변에 위치한 밤나무 농원으로 떠난다. 교통비와 밤값(4kg)을 포함해 어른 2만5000원, 어린이 1만9000원.

△여행스케치(02-701-2507)는 10월 13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경기도 가평 푸름유원지로 밤줍기를 떠난다. 어른 3만5000원, 어린이 2만5000원. 1인당 4kg을 가져갈 수 있다. 큰 밤, 예쁜 밤, 작은 밤을 주문 사람들에게 경품을 주는 행사도 한다.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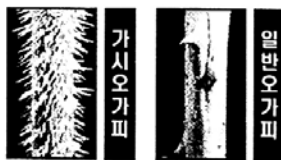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TEL : (02)2272-4900

아미타불을 친견, 직접 극락을 다녀오다!

중국 관정 큰스님의 6년 5개월 극락체험기



석관정 지음 | 대주 옮김 | 신국판 | 정가 8,000원

극락은 있다

실화 체험기

"실제로 내가 서방극락세계에 다녀온 시간은 대략 스무시간 정도라고 생각되었는데, 다시 인간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6년 5개월 지나있었다"

본문 중에서-



관정 큰스님은 현재 중국 복건성 선유원 적수암사에 주석하시면서 미국·캐나다 한국 등 전세계 21개국을 순회하며 법을 전하고 있다.

- 극락세계 체험의 내력 / 도솔천에서 스승 허운화상과 상봉
- 미륵보살의 설법 / 아미타불을 친견 하품·중품·상품연화
- 아미타불의 부촉 / 인간세상으로 돌아오다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59 갤러리상 405호 ☎ 02)272-0292~3 **붓다의마음**